

## 화장품 (비중확대)

Analyst 김혜미 · 02)6923-7337 · consumer@capefn.com

### 더딘 중국 소매판매 회복에도 여전히 견조했던 화장품

- 7월 중국 소매판매는 플러스 전환을 예상했으나, yoy -2.6% 기록하며 전월까지의 회복 추세에서 벗어나 역성장 폭 되려 확대
- 품목별 소매판매의 mom 성장세는 대체로 모든 항목에서 역성장. 이는 전월 대규모 온라인 행사 실시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
- 소매판매액 전년대비 가장 크게 성장한 품목은 여전히 화장품 카테고리임을 확인
- 최근 중국 관련 뉴스 플로어로 국내 화장품 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기대감보다 업황 고려한 대형주 위주의 대응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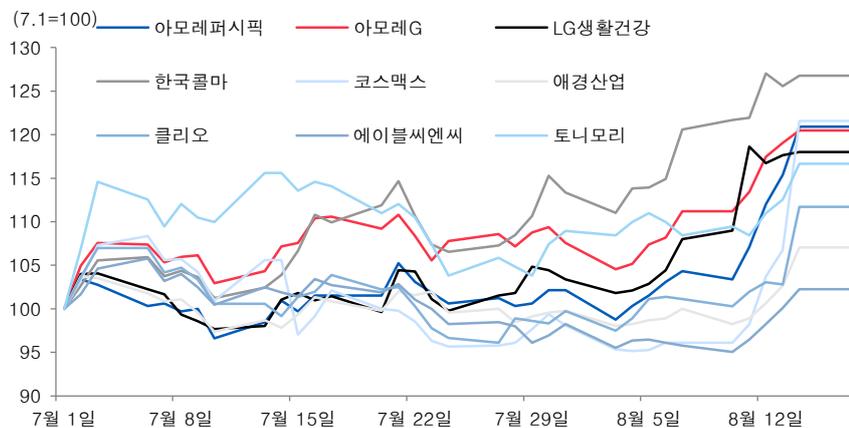
#### 7월 중국 소매매출 동향

- 7월 중국 소매매출은 3조2,203억 위안으로 yoy -2.6%, mom -3.9% 시현. 수량 기준 yoy -2.7%
- 세부 항목별 소매매출로,
  - 화장품: yoy +14.0%, mom -29.4%
  - 식품(상품): yoy +2.1%, mom -9.8%, 음료: yoy +4.8%, mom -9.9%, 주류 및 담배: yoy -1.5%, mom -14.2%
  - 케이터링(외식): yoy -10.3%, mom +0.6%
  - 패션: yoy -4.8%, mom -16.1%
  - 귀금속: yoy +2.3%, mom -7.4%

####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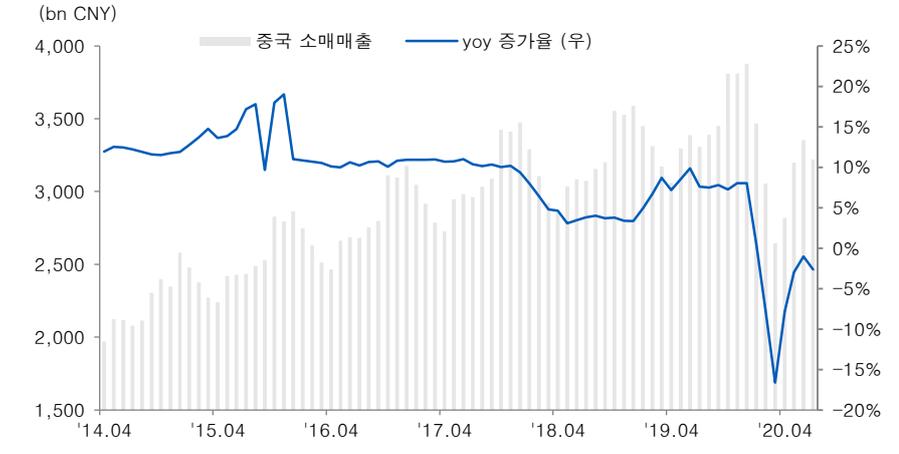
- 빠르게 반등하던 중국의 소매매출은 지난 6월 yoy -1.0%를 기록하며 7월 플러스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으나, 실제 yoy -2.6%로 역성장 폭 확대. 다만, 수량 기준 실질성장률은 미약하게나마 회복 추세 지속 유지 중(6월 yoy -2.9% → 7월 yoy -2.7%). 한편, 품목별 소매판매액은 전반적으로 mom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6월 실시했던 온라인 쇼핑 이벤트에 따른 하이 베이스 효과로 판단
- 당사가 특이점으로 언급해 온 화장품 소매판매의 증가세는 7월에도 지속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Top picks로 제시했던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의 2Q20 실적에서도 해당 트렌드를 확인
- 최근 시진핑 방한 가능성 고조 등 긍정적인 중국 관련 뉴스 플로어에 따라 국내 화장품 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기대감보다 현재 업황(중국 면세 입점 수해, 브랜드력 확보, 현지 매출 비중 등)을 바탕으로 대형주 위주 대응을 추천

그림1. 2Q20 이후 국내 화장품 업체 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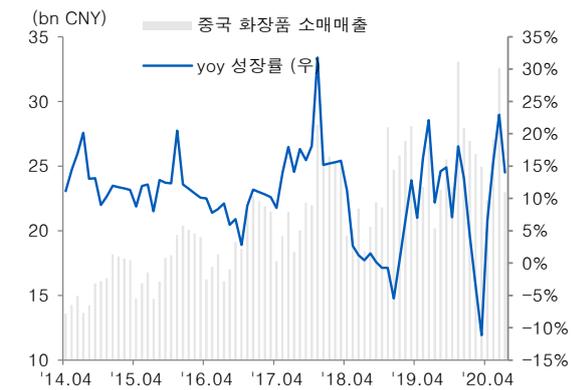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중국 월간 소매매출 추이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중국 화장품 소매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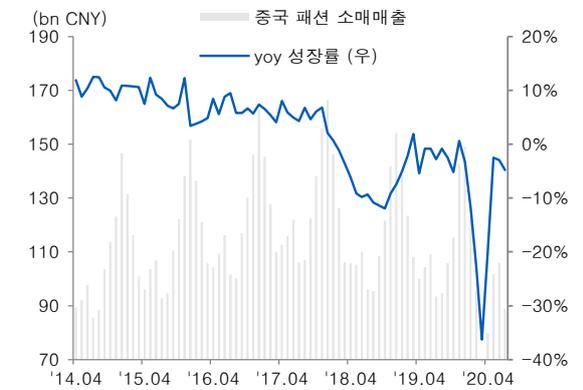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중국 식품(주류/담배,음료 제외) 소매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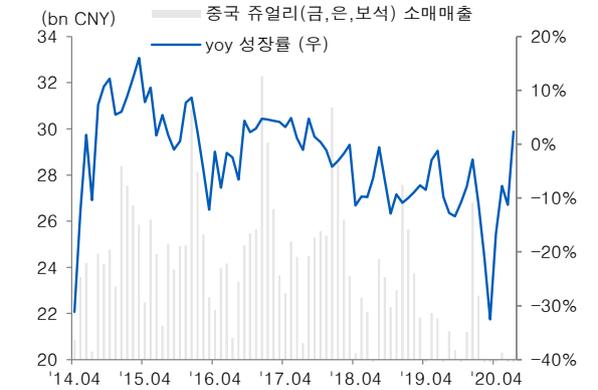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중국 패션 소매매출 추이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중국 주얼리(금,은,보석) 소매매출 추이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Ratings System**

구분	대상기간	투자의견	비고
[기업분석]	12개월	BUY(15% 초과) · HOLD(0%~15%) · REDUCE(0% 미만)	* 단,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최종분석 이전에는 긍정, 중립, 부정으로 표시할 수 있음.
[산업분석]	12개월	Overweight · Neutral · Underweight	
[투자비율]	12개월	매수(96.71%) · 매도(0.00%) · 중립(3.29%)	* 기준일 2020.06.30까지

**Compliance**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